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88호
2024.01.04.(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중국·동남아】 中, 동남아 5개국과 '국제 경제협력 5개년 발전계획' 체결

【한국·중동】 韓·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EU】 EU, '탄소제거인증' 도입 추진

주요 산업별 이슈

【이차전지】 EU 집행위, 유럽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30억 유로 지원 패키지 추진

【광물】 中, '광산자원법' 개정 작업 추진

【철강】 美·EU 철강협상, '25년까지 관세 부과 유예 연장 발표...美 대선 등 변수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통상】 '24년 美 대선에 따른 트럼프 주요 정책 공약

원자재 뉴스 PLUS

【이차전지】 中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 계속...공급과잉 국면 올해도 지속 예상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신년 특별기고】 ESG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주요 개념들과의 차이점 이해하기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24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 유관기관 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부록】 구독자 후기 이벤트 베스트 후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중국·동남아

中, 동남아 5개국과 '국제 경제협력 5개년 발전계획' 체결

12.26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란창강*-메콩강 국가 국제 경제협력 5개년 발전계획('23~'27)'을 체결했다고 발표

* 란창강(澜沧江, Lancang Jiang): 중국에 소재한 메콩강 상류 일대

» 체결국의 경제무역 주무부처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국제물류,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건설, ▲전시회, ▲중소기업, ▲인적자원, ▲경제·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의 주요 골자

»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의 교역규모*는 '20년 3,000억 달러(약 389조 원)에서 '22년 4,000억 달러(약 519조 원)를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 시현

* 중국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20년부터 6.5% 이상 유지 중

중국의 금번 경제협력 5개년 개발계획은 美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코자 하는 의도로 분석됨

» 또한, ▲미국의 對中 추가관세 회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中 기업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 간 국가 차원의 경제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반응

출처: 중국 상무부 보도자료('23.12.26)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한국·중동

韓·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12.28일 서울에서 산업부는 GCC* 사무총장과의 韓·GCC 장관회담 계기 韓·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발표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

» 韓·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韓·UAE 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로, 중동 시장을 놓고 경합 관계에 있는 주요국*보다 먼저 FTA 타결에 성공

*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 중단된 상태

GCC 국가 품목 수 80.5%의 양허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디지털 분야 등 新통상 분야의 포괄적 협력체계 마련

»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의료가·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하여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韓·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2.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EU, '탄소제거인증' 도입 추진

- 📌 EU는 '50년 기후중립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탄소제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제거활동의 정량화를 위한 「탄소제거인증」 도입 추진
 - » 탄소배출 상쇄노력만으로는 기후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탄소포집·저장(CCS) 및 탄소제거(CDR) 기술* 육성
 - * 탄소관리 및 기술 구분: (탄소감축) 직·간접적 탄소발생원으로부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줄이는 것 / (탄소상쇄) 현재 또는 미래에 배출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탄소포집) 산업공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CO2를 분리·포집 / (탄소제거) 기술 및 자연환경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반영구적 격리·저장
 - » EU는 탄소제거인증제 도입을 통해 마이너스 배출을 인정하고,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과 보상체계를 수립할 계획
- 📌 '24.3월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의에서, 규정 범위·연관 규정 업데이트 주기·환경·무결성 보장 등에 대한 의견차 조율 예정
 - »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 시, 탄소저감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EU기업이 무역이나 입찰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 제기
 - » 또한, 탄소제거인증으로부터 파생된 자발적 탄소제거시장, 임팩트 금융 등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부상 전망

출처: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EU 23-24('23.12.22)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이차전지

EU 집행위, 유럽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30억 유로 지원 패키지 추진

- 📌 '23.1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12월 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30억 유로(약 4조 3천억 원) 지원 패키지를 발표
 - » EU 집행위원회는 영국과 '24.1.1일부터 거래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도입을 연기하기로 한 영국과의 향후 거래의 일환으로 해당 패키지를 제안
 - » 패키지 자금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조성되는 EU의 혁신 기금에서 마련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26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이사회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적용을 '2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법안 승인
 - » EU와 영국은 '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당시 전기차의 부품 자급률이 45% 미만일 경우 '24년 1월부터 상대국의 전기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27년까지 유예될 예정
 - » EU 관계자는 "EU 내 배터리, 화학물질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EU 역내 산업 수요의 70%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출처: KBA Europe ('23.12.21), 연합뉴스('23.1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광물

中, '광산자원법' 개정 작업 추진

- 🕒 '23.12.25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 광물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광산자원법' 개정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격)에 상정되었다고 보도
 - ▶ 법 개정안은 총 8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자원 비축·응급 관리제도 구축, ▲광물자원 탐사·개발 규범화,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 ▲광물자원 공급능력 강화 및 공급 보장제도 구축, ▲녹색개발 및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 보완
 - 🕒 최근 中 정부는 경제안보·환경보호 기조 하 자국 내 광물 개발, 불법 채굴 및 산업망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
 - ▶ 中 정부는 국민경제·민생과 연관된 잠재적 국가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는 핵심광물*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
- *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분류되며 에너지광물 6종, 금속광물 14종, 비금속광물 4종 등 총 24종이 포함
- ▶ 中 정부는 30여 년 만의 '광산자원법'(86.10.1일부 시행) 전면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법제화한다는 방침

출처: 신화망('23.12.25)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철강

美·EU 철강협상, '25년까지 관세 부과 유예 연장 발표...美 대선 등 변수

- 🕒 12.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美·EU는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무관세 조치를 '25년 초까지 상호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 EU는 미국産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적용 시점을 '25.3.31일로 연기하였으며 미국은 유럽産 철강·알루미늄 중 지정된 쿼터에 대해 '25.12.31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
 - 🕒 양측은 '24년에도 관련 협상 진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오는 6월 EU의회 선거, 11월 美 대선 등으로 인해 교착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다수
 - ▶ 무관세 유지기간 중 맞불 관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철강 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체결을 논의해왔으나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 美·EU 간 철강·알루미늄 과잉 공급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자 협정

출처: 연합뉴스('23.12.2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통상

'24년 美 대통령 선거에 따른 트럼프 주요 정책 공약



60번째 美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가 11.5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으로,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前 대통령 포함 6명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

- ▶ 공화당은 7.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공식 추대 예정
- ▶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지명 외에도, 새로운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을 공개하여 양당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정책 향배를 가능할 기회 제공

트럼프 주요 무역·통상정책 공약 개요

① 미국 우선주의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美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 경제 치적을 견인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 표출 ▶ 美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및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 ▲對中 규제 강화, ▲국내 제조업 육성 등의 정책 예고
②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추가 적용하되, 일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도입 검토 ▶ ▲對美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 조작 시도 국가,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10% 기본 관세에 추가로 징벌적 세율 적용 방침
③ 트럼프 상호무역법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을 통해 美-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평등화 * 현재 전 세계는 미국보다 평균 2배 높은 관세율 적용(中 341%, EU 5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 ▶ 美 대통령은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美 수출에 적용하도록 외국과 협상하고, 합의 불발 시 상응하는 고율 관세를 명령토록 제도화
④ 對中 의존 완전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 박탈 통한 對中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 취소 및 고율의 對中 관세 체계 신설 * 美-외국 간 무역관계를 의회의 별도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정상적 무역관계를 부여하는 법률개념 ▶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및 매각 종용 ▶ 중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포함하는 아웃소싱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금지
⑤ IPEF 취임 즉시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EF를 "아시아로 아웃소싱을 촉진하여 미국 농업·제조업을 침탈"하는 협의체로 폄하하며 취임 즉시 IPEF의 폐기 진행

시사점

- ▶ 현재 트럼프는 공직 출마 자격 정지 등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경선 등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이나, 트럼프의 무역·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할 경우, 美·中·EU 등 세계경제 블록화의 가속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경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
- ▶ 한국은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전략 구사와 더불어 한국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증대

출처: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US23-41('23.12.22)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종합

中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 계속...공급과잉 국면 올해도 지속 예상

☞ 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이 **공급과잉 국면에 직면하면서** 소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올해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 [출처: 중국 상증보('23.12.26.)]

* '22.11월 대비 '23.11월 배터리 소재 가격 추이: ▲(배터리용 탄산리튬) 58.4만 위안/톤 → 14.9만 위안/톤, ▲(전해액) 7만 위안/톤 → 2.3만 위안/톤, ▲(배터리셀) 1.07 위안/Wh → 0.55 위안/Wh [출처: Baiinfo]

- 현지 업계 관계자는 “中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으며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는 선순환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4주)

◆ [비철금속] 동 공급차질 우려로 동 가격 ↑,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확대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년	전년비(%)	12.3주	12.4주	전주비(%)
동	8,797	8,478	△3.6	8,458	8,506	0.6
니켈	25,605	21,474	△16.1	16,499	16,353	△0.9
아연	3,478	2,647	△23.9	2,559	2,622	2.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 연준 금리인하 전환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라 전동기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했으며, 메이저사의 광산 채굴 차질에 따른 내년 동 수급상황 악화 전망도 상기 가격 상승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

☞ (니켈) 中 인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니켈시장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했으나, 인니에 소재한 中 Tsingshan사의 니켈 제련소에서 화재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노조 시위에 의한 공급차질 가능성 제기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12월 4주차 니켈 재고량은 61,294톤으로 전주대비 16.4% 증가, 7주 연속 증가세로 니켈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세 지속

◆ [철강] 美 연준 긴축완화 기대로 철광석 가격 ↑, 中 경기부진으로 유연탄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년	전년비(%)	12.3주	12.4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3.32	△50.3	140.53	137.30	△2.3
원료탄	364.99	295.71	△19.0	320.13	323.75	1.1
철광석	120.26	119.32	△0.8	136.32	140.85	3.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美 연준 긴축완화 전망 및 中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계획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로 철광석 가격 상승세
 ▶ 다만, 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강생산 제한 우려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 (유연탄) 유가하락 및 中 경기부진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41달러에서 134달러선으로 하락세 지속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4주)

◆ [희소금속] 철강·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정체된 영구자석 분야 수요 지속으로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년	전년비(%)	12.3주	12.4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66	△18.4	1,115	1,125	0.9
탄산리튬	72,290	35,697	△50.6	13,602	13,506	△0.7
수산화리튬	67,180	35,994	△46.4	13,910	13,142	△5.5
코발트	31.20	17.82	△42.9	16.67	16.85	1.1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30,258	△13.2	376,400	366,600	△2.6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78,383	△41.3	63,760	64,120	0.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높은 연료비, 1월 주요 제강사 입찰가 상승 기대로 현물가 상승

📌 (탄산리튬) 연말까지 이차전지 분야 현물수요 부진이 이어졌으나 낮은 판매가로 생산업체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 거부 이어지며 주중 시장가격 유지

▶ 수산화리튬은 삼원계 양극재 분야 수요가 전월대비 감소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中 주요 수산화리튬 생산업체는 상당량 생산재고 보유 중이나 주요 수입국인 韓 시장의 수요 부진

📌 (코발트) 中 신규 국가 비축에 대한 기대로 가격 반등

▶ 유럽 코발트 금속가는 크리스마스 연휴 및 신년을 앞두고 시장거래가 없어 전주 마지막일 가격을 유지한 반면, 中 코발트 금속가는 국가 비축국(SRB)의 신규 비축 예정에 대한 기대(미정) 반영되며 가격 상승

📌 (희토류) '24년도에도 영구자석 분야의 저조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으로, 수요업체들의 장기계약 물량 외 현물 수요 없어 산화디스프로슘 가격 하락

◆ [에너지] 홍해지역 수송 리스크 증가, 美 원유재고 감소 및 물가지표 둔화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년	전월비	12.3주	12.4주	전주비
두바이유	96.41	82.10	△14.31	78.00	79.31	1.31
브렌트유	99.04	82.17	△16.88	79.07	79.70	0.63
WTI	94.33	77.60	△16.73	73.52	73.82	0.30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홍해 수송 리스크 증가, ▲美 원유재고 감소, ▲일부 OPEC 국가들의 OPEC지지 선언, ▲美 물가지표 둔화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 일부 해운사의 홍해 항로 복귀 계획은 상승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공급망 더 알아보기

[신년 특별기고] ESG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주요 개념들과의 차이점 이해하기



[작성]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

개관

ESG는 환경(Environment)의 'E', 사회(Social)의 'S', 지배구조(Governance)의 'G' 등의 앞 글자들을 합친 단어로써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ESG의 개념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ESG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의 기저를 이루는 기업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BHR')과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RBC')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BHR에 관한 국제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UN이 2011년에 발표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라는 규범이다. 이를 줄여 UNGP 라고 부른다. UNGP는 UN이 제정한 다른 국제협약들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BHR 관련 국제규범들이 대부분 UNGP 내용을 차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국제규범의 원천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UNGP에서 규율하고 있는 BHR에 대한 3가지 핵심 축(Pillars)인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그리고 구제(Remedy)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첫째, 국가는 정책이나 법령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둘째, 기업은 이러한 국가의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이나 법령 등을 존중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존중의 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사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셋째, 국가와 기업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구제수단은 물론 다른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에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다.

결국 BHR에 기초한 인권경영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실천하는 경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RBC는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2) 기업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영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이러한 RBC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 바로 1976년에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경영과 RBC를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실사의무(Due Diligence)'이다. 이 실사의무의 범위는 기업 자신의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하여 그 기업의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사는 기업의 규모, 심각한 인권 영향의 위험, 그리고 기업 운영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항상 지속되는 절차이다.

한편, BHR과 RBC의 개념이 성행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기업경영의 화두로 향유되었던 개념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이다.

CSR은 1953년 Howard Bowe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랜 기간 CSR보다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로 종종 지칭되었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선활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주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CSV는 2011년 Harvard 대학교의 Michael Porter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기업이 책임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차 자선 사업·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는 기존의 CSR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CSV의 개념은 시작한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CSR이 기업의 주요사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CSV는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①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② 가치사슬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③ 지역사회의 사업 기반 개선 및 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CSV의 개념 역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CSR의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가치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배구조나 노동, 인권 등의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과 CSV가 기업 중심 사고에 매몰되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RBC와 BHR의 중요성이 부상하게 되었고, 이 두 개념은 기업의 경영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서 기업의 관련 공급망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개념인 실사의무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국제기구들은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업의 경영 측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책임투자 의무를 부과하면서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ESG, RBC, CSR 및 CSV 개념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 [표1] ESG-RBC-CSR-CSV 비교표

	ESG	RBC	CSR	CSV
정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핵심개념	RBC가 기업의 경영 측면을 강조한 반면, ES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개념 추가 및 강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 부정적 영향의 회피 및 완화	선량한 기업시민, 사회공헌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가치 창출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	밀접한 관련성 있음	밀접한 관련성 있음	약하거나 없음	밀접한 관련성 있음
의무	일부 있음	일부 있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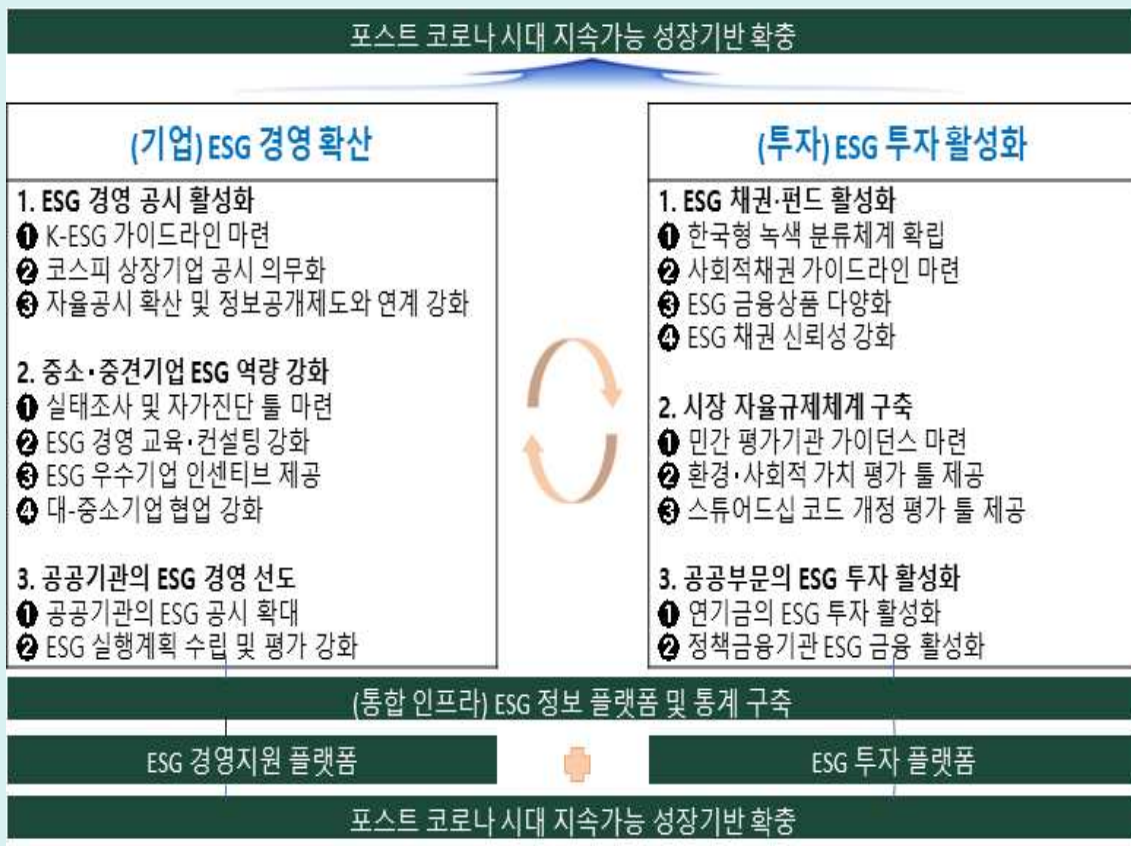
나아가, ESG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종래에 UN, OECD 및 ILO 등 국제기구들이 선도적으로 인권경영, 기업책임경영(RBC), 그리고 노동 및 인권 이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던 중에 투자자의 책임투자 의무와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의 Larry Fink 회장이 피투자기업 CEO 대상 연례 서한을 통한 ESG 경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과 국내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면서 핵심 Agenda로 ESG를 채택하고 많은 확산 노력을 한 점이 ESG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는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SG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ESG 경영 및 투자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ESG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ESG 관련 플랫폼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의 ESG 포털(기업 ESG 등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펀드·채권 현황, ESG 뉴스, 최신 동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온라인 플랫폼(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정책정보,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가진단. 관계부처 정보 제공),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ESG 통합 플랫폼(ESG 진단시스템, ESG 사업운영 시스템, 통계 관리, 정책 건의, 정보 제공) 등이 구축되었다. 나아가, ESG 정보와 각종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에는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운영하는 ESG 플랫폼을 통합할 예정이다.

◆ [표2] 정부부처 합동 “ESG 인프라 확충 방안” 요약·정리표



국제적으로 ESG 관련 규제 법제도 정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U의 경우, 최근 Taxonomy 규정, 비재무 보고 지침 및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 같은 규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ESG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ESG 관행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ESG 규제를 자발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전환하여 EU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기후 관련 공시를 표준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제안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표준화된 지표 부족으로 인해 각 기업의 ESG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ESG 규정 준수를 정량화하려는 노력과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SG에 대한 관심이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객관화하고 표준화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관계부처합동,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021. 8. 26.
 안건형 · 박상희, 『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삼영사, 2018.
 이신형, “국내 ESG 플랫폼 하나로 묶는다...한국거래서 정보 통합은 장기 과제”, ESG경제, 2023. 6. 2..
 신창균, “CSR과 CSV”, 기업지배구조(CG) 리뷰 제66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최승재, “ESG 관점에서의 금융상품 관련 제도설계”, 「증권법연구」, 제23권 제3호, 2022.
 Robert McCorquodale, Lise Smit, Stuart Neely and Robin Brooks,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Law and Practice: Good Practices and Challenges for Business Enterprises”,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Vol 2 Issue 2, 2017.
 OECD &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OECD Publishing, Paris, 2016.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shr_en.pdf.



공급망 소식통

'24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 유관기관 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KOTRA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24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 유관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17(화) 14:00-19:00 / 여의도 콘래드 호텔, Park Ballroom(5층)
- » 내용 : 글로벌 진출전략 제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스마트팜 기업 네트워킹 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잠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14:00-14:05(5)	개회사	KOTRA
	14:05-14:10(5)	환영사	한국농어촌공사
	14:10-14:15(5)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14:15-14:30(15)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14:30-14:45(15)	'23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성공사례(I)	TBD
	14:45-15:00(15)	'23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성공사례(II)	TBD
	15:00-15:20(20)	기관별 '24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KOTRA
	15:20-15:40(20)		한국농어촌공사
	15:40-16:00(20)		농촌진흥청
	16:00-16:20(2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6:20-16:40(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6:40-16:50(10)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활용 안내
	16:50-17:00(10)	Q&A	
1부 종료 / (K-Farm Agora 참가기업 자리이동)			
2부	17:00~18:00(60)	[K-Farm Agora] 참가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 장소 : 파크 스튜디오 5층 ○ 참석 : 신청기업 50개사 내외 *별도 참가신청 필수 ○ 내용 : 해외진출 희망기업 협업-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 (해외진출 정보제공, 기업간 교류, 홍보 등)	
	18:00~19:00(60)	참가기업 네트워킹 만찬	

* 참가기업 대상 '24년 중동 스마트팜 진출전략 보고서 증정

설명회 신청·문의

- » 설명회 참가신청 :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내 설명회 공고 선택하여 온라인 참가신청 (~'24.1.12.(금))
- » 네트워킹 참가신청 : 상기 공고 내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smart_ag@ekr.or.kr로 신청 (~'24.1.10.(수))
- » 관련 문의 : (설명회 관련) ☎ 02-3460-7461 / ✉ smartfarm@kotra.or.kr (KOTRA ICT융복합팀)
(네트워킹 관련) ☎ 061-338-5742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구독자 후기 이벤트 베스트 후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이런점은 칭찬해요!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와 트렌드 파악에 용이했습니다. 외부 발간 보고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공됨에 따라 출처 보고서 원문을 찾아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무역협회에서 발간했던 「러-우 전쟁 영향 분석 보고서」 시리즈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설비 및 자재 구매관련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주요국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현업 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는 '공급망 더 알아보기' 코너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해당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어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주간 경제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 수출입 국가와 가격 협의 시 주간 유가 및 에너지 가격을 정확한 숫자에 근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이런점은 아쉬워요!



'22년에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이 많았으나, 현재는 소부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반도체·2차전지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공급망 ESG가 중요해진 만큼 ESG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이 된 자료 URL을 추가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글자 폰트 크기와 표지 색상 채도 조절을 통해 가독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이렇게 개선해주세요!



소부장 중심의 주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IT·물류·ESG·친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이슈 관련 연간·분기별로 결산하여 정리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美 IRA·반도체법, EU CBAM·ETS 등 국별 규제에 대한 현지 정부 정책 등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어나 일반 상식 등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수렴하여 2024년에는 더 나은 인사이트를 전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24.1.3.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1말	12/28	1/2	1/3	전일비	23말비
₩/US\$	1,188.80	1,264.50	1,290.00	1,288.00	1,300.40	1,304.80	0.34%	1.30%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87.80	1,286.80	1,298.40	1,298.20	△0.02%	0.89%
₩/CNY	186.51	181.44	180.90	181.37	182.29	182.68	0.21%	0.72%
₩/Y100	1,032.48	945.56	877.79	912.25	919.79	918.61	△0.13%	0.70%
Y/US\$	115.14	133.73	146.96	141.19	141.38	142.04	0.47%	0.60%
US\$/EUR	1.1318	1.0617	1.0974	1.1105	1.1032	1.0957	△0.68%	△1.33%
CNY/US\$	6.3681	6.9630	7.1244	7.1092	7.1253	7.1411	0.22%	0.45%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00.4 (₩/¥100) 919.7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2.29(전일)	'24.1.2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7.08	78.10	1.0	6.3	△0.7
					1.3%	8.7%	△0.9%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40.50	143.20	2.7	63.7	25.9
					1.9%	80.1%	22.0%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476.00	8,430.00	△46.0	1430.0	43.0
					△0.5%	20.4%	0.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0.0%	12.3%	△1.0%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6,300.00	16,600.00	300.0	△2500.0	△13825.0
					1.8%	△13.1%	△45.4%

반도체

	'21	'22	'23.9월	'23.10월	'23.11월	12/28	12/29	1/2	1월(~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48	1.55	1.66	1.76	1.76	1.77	1.77
(%, YoY)	29.9%	△23.0%	△41.3%	△35.6%	△23.1%	△10.5%	△9.8%	△9.0%	△8.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2	6.40	6.42	6.35	6.35	6.35	6.35
(%, YoY)	14.7%	10.7%	△3.8%	△2.6%	△1.7%	△2.8%	△2.8%	△2.8%	△2.4%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2.15	12.22	12.29	전주비(12.22)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1093.52	1254.99	1759.57	40.2%	58.9%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2.18	12.19	12.20	12.21	12.22	전일비(12.21)	'22년말비
BDI	2217	1515	2288	2219	2150	2087	2094	0.3%	38.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